

2020 웰컴레지던스 커뮤니티 프로젝트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

ACIENT FUTURE

X

2020 웰컴레지던시 커뮤니티 프로젝트

오래된 미래

CONTENTS

08.

술도, 장도, 그 시절 이야기가
담긴! 독들

김응관

14.

도란도란 사람이 모이는
무계 노우회 경로당

강상길

20.

동양의 아름다움을 담은
산수화 병풍

김승도

26.

믿음으로 쌓아올린
장유 중앙교회 외벽

박성도

32.

젊은 날 피땀의 흔적,
장릉

백구선

38.

그리움을 담은
할머니의 오토바이

성진제

44.

백 년 이상의 가치를
담은 창유면지

송봉업

50.

어른들의 손때 묻은
나비장과 개다리반상

양미화

56.

하우 투 리브(How to live),
삶을 담은 사진들

이청재

62.

힘들었지만 고마운 우리 옛날 집,
정미소

허문전&정홍길

68.

시아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재봉틀

최곡자

74.

부모님 시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옛 물건들

최종대

80.

편집자주

당신의 '오래된 미래'는 무엇인가요?



레지던시(residency)

예술가는 특정 공간에 '거주'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다른 예술가 등과 교류하며 창작 활동에 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공간을 말한다.

들어가는 글



웰컴레지던시 커뮤니티 프로젝트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당신에게’

김해문화도시센터 **손민지**

장유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던 행복한 추억의 시절부터 고속도로가 뚫리고 마을이 단절된 이야기까지. 무계동 주민의 인터뷰 속에는 개인 이야기에서 출발해 마을의 역사, 도시의 역사까지 담겨있다. 무계동 웰컴레지던시는 지역 문화 자원을 작가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창작 결과물로 풀어내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성격의 레지던시다.

김해문화도시센터는 본격적인 레지던시 운영에 앞서, 이번 오래된 미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 무계의 역사와 이야기, 주민의 생활을 조사하고자 했다.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중심으로, 인터뷰해서 조금 더 쉽고 친숙하게 기억을 소환해보고자 했다.

이번 조사 자료는 앞으로 입주하게 될 작가가 마을과 지역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가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될 것이다. 무계동 주민의 기억과 추억이 담긴 이야기들이 예술가들의 상상과 만났을 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 기대 된다.

김해 문화도시의 비전인 '오래된 미래'는 시대를 먼저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와 경험에서 그 지혜를 찾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마을을 떠나지 않고 내 삶의 터전을 지키며 수 십 년을 살고 있는 무계 주민의 경험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무엇'이 예술과 잘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 무계동으로 다시 재생되기를 꿈꾼다.

들어가는 글



오래된 미래 프로젝트 ‘삶’을 담다.

별글 김예린 편집장

‘사망신고서’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 이 한 장으로, 일생의 마침표가 찍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한 사람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은 주인을 잃음으로써 ‘쓰임’을 상실한다. 쓰임을 상실한 물건은 커다란 쓰레기 마대 자루에 켜켜이 담기거나, 고물상으로 뽕뽕이 흩어진다.

안타까웠다. 이야기를 간직한 물건, 한 손에 잡아들면 지난 추억들이 어제 일처럼 우르르 쏟아지는 물건들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물어 현대 미술가 앤디워홀까지 닿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앤디워홀 미술관’은 지난 1994년 개관하면서 앤디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타임캡슐’을 공개했다. 그의 타임캡슐에는 ‘신문 기사’, ‘편지’, ‘은발가발’, ‘와인’, ‘영수증’, ‘사진’ 등 610개 물품이 담겼다. 앤디워홀은 30년 동안 작품 작업을 하면서 그때마다 생각나는 물품을 종이박스에 넣어두었다. 시간이 지난 뒤 앤디워홀의 타임캡슐은 그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비단 앤디워홀뿐 아니다. 가까운 국립김해박물관에 가면 청동기, 철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토기, 화살촉 등 일상생활에 쓰였던 물건들이 유리 안에 갇혀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다.

‘앤디워홀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물품 또한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을까?’

오래된 미래 프로젝트는 이 물음에서 출발했다.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무게동 주민을 한 명씩 만

났다.

‘에이, 그런 물건 없다’, ‘아무 것도 아닌 이야기다’,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겠냐’, 주민들은 손사래 쳤다. 자신의 삶이, 물건의 이야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책에 실어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겼다. 그럴 때마다 주민의 손을 한 번 더 붙잡았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고생한 이야기가, 당신의 역사가 이 물건에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주민들은 집 곳곳에 숨겨져 있던 물건을 꺼내와, 한참을 생각했다. 입을 떼자 이야기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오래된 미래 프로젝트 이야기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았다. 때론 옛집이 됐고, 사람들이 도란 도란 모이는 경로당도 이야깃거리가 됐다.

‘삶’이라는 단어를 ‘ㅅ, ㅌ, ㄹ, ㅁ’ 자음과 모음으로 하나씩 뜯어보면, ‘사람’이 보인다. 오래된 미래 프로젝트는 ‘삶’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사람이 담긴 물건 이야기를 차곡차곡 담았다. 한 개인의 일상이, 일상을 쌓아 올린 삶이, 그 삶을 목격한 물건들의 가치가 단순히 쓰레기로 취급되지 않길, 여기에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었음을 누군가 기억해주길. 나의 바람을 담아 오래된 미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지금은 그 독을 준 사람도,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지.
지금 와서야 그 독을 쓸 일은 없지. 그래도 당시 장유양조장에서 그 독을 썼을 거라고 보고,
오래된 만큼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

술도, 장도, 그 시절 이야기가 담긴 독들

감응관

1952년생

장유무계도시재생주민협의회장

무계동

독들

1900년대

술도, 장도, 그 시절 이야기가 담긴 독들

나는 무계리 광석부락에서 태어났다. 부모님 대부터 광석마을에서 자리를 잡아서, 나도 군대 생활 잠깐 빼고는 계속 여기에 있었지. 자식들은 결혼하고 다 밖으로 나가고, 지금은 우리 부부만 여기 무계에 남아 있지. 나는 평생 한시 쓰고, 그림 그리면서 살았다. 일본식 다도도 가르쳤지.

옛날 물건은 창고에 남겨둔 게 조금 있지. 내가 쓰던 것들이니까 버리지 못하고 모아 놔다. 예전에 쓰던 난로도 있고, 또, 어머니가 쓰던 장독들도 많이 남아 있어. 간장이나 된장들 담던 장독들인데, 지금은 창고 마당에 두고 있다. 크기가 큰 건 당신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그만한 건 깰까 봐 사무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지. 보고 있으면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렇지.





여기 이거는 지금 약수탕 옆에 큰 건물 자리에 있던 양조장, 거기서 일하던 사람한테 받은 독이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신 씨였다. 내가 그 사람 엄마하고도 아는 사이였다. 알기로는 원래 그 사람이 배달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었어. 자전거에다가 양쪽에 한 말씩 지고, 뒤에 짐을 싣고, 그렇게 배달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양조장 사장님한테 독을 하나 선물을 받았던 모양이야. 당시에는 독이 비쌀 때거든. 그래서 받아서는 처음에는 그 집에서 어머니가 독을 계속 썼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신 씨가 나한테 와서는 '집에 독이 큰 게 있는데 당신이 가져가라' 하더라고, 그게 한 20년 전 될 거야. 그래 가지고 나는 또 발이 큰 게 있으니까, 독을 리어카에 싣고 와서 밭에다가 계속 놔뒀지. 그랬는데 어떤 날은, 그 독이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나와 있더라고.

내 생각에 이게 솔독치고는 크기는 좀 작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워낙 독이 크니까, 누가 가져가려고 대문 앞까지 옮겼다가 못 가져간 거지. 그래서 또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그 독을 창고 안에 넣어 놔. 지금은 그 독을 준 사람도,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지.



지금 와서야 그 독을 쓸 일은 없지. 그래도 당시 장유양조장에서 그 독을 썼을 거라고 보고, 오래된 만큼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 그 독에 술도 담고, 탁주가 다 완성되면 그 독에 보관하면서 손님 오면 퍼가지고 팔았겠지. 그때는 지금처럼 플라스틱 통 같은 게 없어서, 독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그랬다. 옛날에는 장유양조장이 제법 큰 편이었다. 그 당시에는 시설도 좋고, 2대에 걸쳐서 양조장을 했으니까 세월도 오래됐던 데였다. 맛도 기억난다. 그 시절에는 이런 맛이 탁주네, 라고 느꼈던 것 같다. 장유는 물이 좋으니까, 그게 탁주 맛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지금은 장유탁주 협동조합도 설립했다. 요즘에는 탁주도 과학적으로 만드니까, 상품화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저 옛날에 장유에 이런 양조장 시설이 있었다, 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시음도 해보면 어떻겠나 싶지.





지금 우리 경로당은 6.25 사변 끝나고 한참 있다가 만들어졌어.
1970년쯤 됐을 거야. 원래 묵수간¹⁾ 하던 걸 마을 사람들이 인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만든 거지요.

도란도란 사람이 모이는 무계 노우회 경로당

강상길

1937년생

무계동

무계 노우회 경로당

1970년대

1) 묵수간 : 묵수들이 일하는 방이나 칸.

도란도란 사람이 모이는 무계 노우회 경로당

내가 1937년 5월생이라. 무계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지요. 무계에 산지 2대손이니까 60년 정도 됐나? 원래도 장유면에 살긴 했는데 삼문리에 살다가 스무 살 때 아버지 따라서 무계로 들어왔지.

어릴 적 어른들한테 들기론 한 200년 전에는 여기가 다 자갈밭이었다고 했어요. 산 밑 범동포까지 물이 차있었다고. 제방이 생기고 나서 지금 모습이 된 거지 김해공항까지 다 바다였어. 그래도 신문장터가 여기 있었고, 큰 규모 우시장도 있었고 옛날에는 제일 발전된 동네였어요.

무계마을이 원래는 무계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2구로 나뉘어져 있고 동으로 바뀐지도 한 10년 될 기구만. 이런 거 말고 옛날이랑 달라진 거는 크게 없어. 여는 장유탕 없어진 거 말고는 뭐 없어. 무계리가 갈라지면서 마을 회관





1구로 가버리고 여기는 장유면의 달동네지요. 젊어서는 무게동에서 전자기기 수리하는 전포를 했어요. 20대에 해서 20년 정도 했지요. 라디오, 선풍기, 전화기 같은 걸 주로 만졌는데 그땐 트랜지스트라라고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라디오도 유행이었지요. 요즘으로 치면 휴대폰 같은 거야. 그때는 다 회로판이어서 그거만 좀 배우면 어렵지 않게 다 만졌어. 전자교습도 있었고 지금은 경로당에 있는 전화기 고쳐주고 하지요.

내가 1974년부터 우리 동네 이장을 했어요. 30년 정도 했지. 요새는 투표로 이장을 뽑지만 그때는 부지런하고 말 잘 들으면 주민들이 추천해서 이장되고 그랬어.

수당이랄 것도 없었고 보리나 쌀 같은 양곡을 받고 그랬지. 옛날 이장은 글썽이 좋았어. 이게 무슨 말이나면 예전에는 깡패도 많고 절도범도 많아서 불량 주민이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 살다가 사고를 칠 수 있거든. 그런 경우가 빈번했어. 그래서 이장들이 우리 동네 전출입자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 들어오면 이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사인을 가져가야 면사무소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걸 글썽이 좋았다 하는 거지요. 우리 경로당 김옥철 회장이랑도 그렇게 얼굴 트고 알게 된 거예요. 담배 한 갑도 안 사오고 그러면 마 그냥 돌려보냈지!



지금 우리 경로당은 6.25 사변 끝나고 한참 있다가 만들어졌어. 1970년쯤 됐을 거야. 원래 목수간 하던 걸 마을 사람들이 인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만든 거지요. 옛날에는 여기 땅이 너무 비싸서 새로 짓지는 못했어. 다른 곳이 4, 5만 원 할 때 여긴 10, 20만 원 했으니까. 외형은 목수간 하던 그때 그대로고 도배랑 장판 정도 회원들끼리 바꾸고, 가끔 지붕 손질하는 정도예요. 나중에 좋은 경로당이 하나 생기면 좋겠어. 여기는 하천부지라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지. 여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경로당이라. 허스름하게 사람들이 기들어오고 지나가고 해도 모범 경로당이야. 나는 여기 70대가 돼서 들어왔어. 회원이 스물다섯 명 정도 되는데 한동네 사니까 서로 다 알고 친하지요. 여름 되면 앞에 정자나무에서 얘기도 하고 할머니들끼리는 치매 예방한다고 화투도 치고.





근데 김해의 웬만한 작가의 작품보다 수준이 높은 거라.
작품은 동양풍이되 산세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풍에 가깝고
기어나 초가의 모습은 작가의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았어.

동양의 아름다움을 담은 산수화 병풍

김승도

1944년생

전 김해청년회의소 회장

무계동

8폭 산수화 병풍

1983년

동양의 아름다움을 담은 산수화 병풍

내가 김해청년회의소 회장을 하고 있을 1983년도에, 김해문화원의 소개로 한 화가가 나를 찾아왔어. 그 사람은 함성국민학교를 나와서 일본과 미국 등에서 유학을 하고 살면서 화가로서 나를 성공을 한 것 같애. 나석이라는 화간데,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일가친척에게 그림을 팔아 도움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 김해시의 상황이 하루 세끼 쌀밥 먹기도 어려운 시기라 예술작품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라. 그림 살 사람이 없다보니 김해문화원을 찾아가 그림을 사 달라 했는데 문화원에서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그 화가에게 나를 소개했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왔었지. 난 그분의 사정이 딱하니까 작품은 보지도 않고 그때 당시 내 주중에 있던 28만 원 중 25만 원을 주고 그 물건을 소장하게 되었지. 세월





이 한참 흘러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 작품이 있어 그때 찬찬히 봤지. 근데 김해의 웬만한 작가의 작품보다 수준이 높은 거라. 작품은 동양풍이되 산세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풍에 가깝고 기와나 초가의 모습은 작가의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았어. 춘하추동 산수화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었어. 그래서 병풍으로 만들었지.

난 태어나기는 장유 능동에서 태어났으나 장유초등학교 장유중학교를 졸업한 후, 학비가 무료인 서울에 국립체신고등학교를 갔고 졸업 후 부산체신청에 다니면서 야간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다녔어. 그러던 중 포항제철로 스카우트 되어 4년 정도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선다는 뜻으로 열심히 근무도 했어. 그 후 김해로 돌아와 통신건설업을 하였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던 중 그 화가의 작품도 사게 된 거지. 같은 김해라도 김해읍에서 주로 사업을 했으나 4년 전에 어머니가 계신 무계로 돌아오게 되었어.

광석부락에 고인돌이 있어서 어릴 때 그 받침돌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놀곤 했는데 지금은 그 받침돌이 없어지고 상석이 바닥에 있더라고.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 능동은 가락국의 마품왕과 질지왕의 무덤이 있어서 마을이름이 능동인데 현재 그 무덤은 아직 고종



을 못하고 있어, 근데 나는 알지... 풍수를 잘 아는 어떤 스님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도굴을 우려하여 비밀로 하고 있어.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3개월간 가락국 구지봉과 김수로왕의 탄강설화에 대한 연재를 기획하여 3회 정도 연재한 걸 봤어. 전 세계 모든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시조대왕에 대한 탄생 형태는 불이나 돌, 그리고 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러 신화 중 전쟁을 거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건국한 시조대왕은 다 알에서 나와. 조선은 471년 동안 스물여덟 분의 왕이 있었지만 가락국은 491년 동안 열 분의 왕이 있었어. 이거는 부자간의 왕위다툼이나 왕자의 난 같은 것이 없는 평화의 통치였기 때문이야. 특히 김수로왕은 도술을 부리는 사람으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을 한낱 꾸민 이야기로 치부하는 글인 거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재하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했고 그 작가는 내 요청을 받아들여 3개월 연재 계획을 철회했어. 나한테 사학자냐 물어보더라고. 그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 이런 시조에 대한 역사의식은 어떤 시기에 관심을 가져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전생에서부터 가져온 지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교회가 김해에서 손꼽는 오래된 교회야. 도로 난다고 원래 교회는 뜯겼고
60년 전에 이리로 왔지. 그때 신도가 3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신도들이 냇가에서
돌을 이고지고 주워 와서 지금 교회를 만들었지.

믿음으로 쌓아올린 장유 중앙교회 외벽

박성도
1938년생
무계동
장유 중앙교회 외벽
1960년대

믿음으로 쌓아올린 장유 중앙교회 외벽

내가 실제는 나이가 더 많은데 옛날에는 아를 낳으면 죽고, 죽고 하니까 어머니가 신고를 늦가 해가 38년생이라. 여기서 나가지고 범동포 갔다가 신문 갔다가 능동 갔다가 일로 왔어. 온지는 61년 됐지. 장유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지.

어려서는 하도 가난해서 어머니가 내 죽을까봐 절에 맡겼어. 장유리에 있던 절인데 지금은 없어. 스물한 살까지 절에서 스님한테 한문, 주판 배우면서 컸지. 그런데 내 친구가 어느 날 부탁을 하더라고 이 교회에 참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사귄다고 하다보니까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용기가 안 생겨가지고 내보고 자꾸 교회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대. 한문을 배워노니까 내가 글을 좀 쓰거든. 편지도 대필해주고 그랬어. 근데 다른 사람





이 알까 싶어서 예배를 하면 제일 늦가 와가지고 구경만 하고 재빨리 나가고 했지. 그렇게 몇 번 하는데 그때 김성보 목사님이라고 이북분인데, 그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들을 만한 기라.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고 마루도 안 깔린 흙바닥에 가마때기 깔고 설교를 들었는데 코흘리개 어린애들한테도 경어를 쓰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 그때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그래도 나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절에 미안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랬지. 서너 번 이래 가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저 사람이 믿는 하느님을 나도 함 믿어볼까. 그래서 일 년 동안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렸어. 새벽에 하고 낮에 일하다가 하고 밤에 하고. 하나님을 한 번 만나 볼라고. 근데 교회 문만 나서면 아무 것도 없는 기라.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 집안이 불곤데 내가 하나님 믿어본다 하니까. 어머니가 내 방에 요강을 집어던지고 그랬어. 그렇게 일 년을 더 기도했지. 그때부터는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은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십니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일마치고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렸어. 오른팔이 내려왔는데 하얀 털이 나 있는 게 서양사람 팔이었어. 예수님 팔이라는 걸 알겠더라고. 그때 웅장하면서 또 사려가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어. 성도야, 이 지팡이를 잡아라. 놀래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드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용두산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 이후로는 가락 끝동에서부터 부곡까지 36개 부락을 다니면서 하루 한 동



네씩 전도를 했어. 성경 내용도 모르고 왜 믿어야 하는지 설명조차 못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고 울면서 그렇게 다녔어.

이 교회가 김해에서 손꼽는 오래된 교회야. 도로 난다고 원래 교회는 뜯겼고 60년 전에 이리로 왔지. 그때 신도가 3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신도들이 냇가에서 돌을 이고지고 주워 와서 지금 교회를 만들었지. 1인당 이백 개씩은 주워왔을 거야. 나도 일마치고 캄캄한 밤에 돌을 메고 왔지. 전문가들이 벽을 쌓으면 우리들은 맨손으로 돌 사이에 시멘트를 메웠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손끝이 다 부르터서 피가 나고 그랬지. 여기 있는 나무들도 다 그때 심은 거야. 그땐 젓가락 같았어. 3년 전만 해도 입구에 큰 은행나무도 있었는데 교회 확장하면서 잘렸어. 눈물이 나더라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 성공도 했었고 망하기도 했었고. 참 힘들 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겠어. 그때 교회에 와서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돌 틈에 풀이 하나 보이다라고. 그 여름이 엄청나게 가물었는데, 시들어가는 풀인데도 뿌리는 파릇하게 살아 있었어. 그걸 보는데 풀의 일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이슬로 버텨가며 살아가는. 그때 그래, 왜 걱정하느냐, 다시 출발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여기서 그렇게 내 삶을 살아왔어.





젊을 때 모심기 해갖고. 칠산 저런 데서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성구고 위에서
근 한 달인가 성구고 해서 저거 장을 샀지. 돈 얼마를 모아서 어찌고 한 거는 내가 기억이 나나.
막내아들이 오십 일곱인데 자가 나기 전에 샀는데 내가 아나.

젊은 날 피땀의 흔적, 장릉

백구선

1938년생

무계동

장릉(단소壇所)

1950~60년대

젊은 날 피땀의 흔적, 장롱

내 원래 이름은 백구선이 아니고 백수선인데 호적을 올릴 때 잘못 올린 모양이야. 원래 나이도 37년생이라. 내 원래 살던 고향은 통영인데, 크기는 삼천포서 컸고, 스물한 살 때 결혼하면서 무계로 왔다. 언니가 여 있었거든. 언니가 여 있어 갖고 중매를 해줬다. 오토바이 센타 있제? 거기 살았거든. 우리 집 아저씨는 성이 진주 하 가인데 양반이고 사람이 좋다고 그라대. 여기서 5리나 이렇게 가면 명법2구, 거기에 하 가들 다 모여 있었다. 그땐 얼굴도 모르고 사람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알지 뭐.

지금 저 아파트 있는 데들이 옛날에는 다 논이고 밭이었다. 장유로 시집 온 사람 중에 고생 안 한 사람 없다. 부자로 머슴을 돌이 데고 살아도 며느리들 시집





오니께 나무하러 가더라. 녹산댁이라고 그 사람도 녹산에서 왔는데 다 나무하러 덩기더라. 나무 팔아가 묵고 살고. 그땐 빨래도 도랑에서 전부 다 했다. 식구가 많은 집에는 여자가 혼자 빨래를 다 못이고 가. 그럼 남자가 쳐다가 내려주고 빨래 다 하고 나면 가서 지고 오고 그랬어. 그땐 타래박 갖고 물 퍼다 뿌리고, 지금 우리 집에 아직도 살려놨거든. 저기 물이 좋아가 빨래 행구고 어떤 때는 도랑에 가고 그랬지.

저 단소는 내가 남의 집 모심어갖고 샀다. 품앗이 같은 건데 그때는 돈내기라고 했어. 그때 내가 모를 한두 달씩 안 심구나. 한 달에 한 20일까지도 성군다. 그래서 그래 모은 돈으로 큰 제기 다 갖고, 쓰던 장은 주고 큰 거 사고, 꿰 사고, 다 산 거다. 젊을 때 모심기 해갖고. 칠산 저런 데서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성구고 위에서 근 한 달인가 성구고 해서 저거 장을 샀지. 돈 얼마를 모아서 어찌고 한 거는 내가 기억이 나나. 막내아들이 오십 일곱인데 자가 나기 전에 샀는데 내가 아나.

그때는 밥을 싸가 가면 얼마, 안 싸 가면 얼마 그렇게 했거든. 내 밥을 싸 가면 쌀을 하루 한 되 줬어. 한 번은 사람을 구한다 해서 내가 멋도 모르고 대답하고 갔는데 일꾼이라곤 없는 기라. 사람이 안 붙어.



그래가 할배하고 내하고 둘이서 했다가. 두 줄 심고 두 줄 오고 그랬다. 하느라고 욕 봤다. 마실 물도 한 번 안 주는 기라. 점심도 우리가 가가고 논 열두 마지기 성구는데 소금 절인 정구지를 반찬으로 주더라. 개도 그런 거 안 묵는다. 할매가 억수 알곶었다. 일한다고 저 먼 데까지도 갔거든. 칠산은 아무 것도 아니다. 거기보다 열 배나 먼 데도 갔다. 줄배를 세 번 씹, 여섯 번씩 타고 다녔다. 요새는 줄배카면 잘 모르제? 여기 다리 생기기 전에, 바닷가에 이 편이랑 저 건너편에 줄을 연결해갔고 그거 당기면서 나룻배로 건너던 거다. 요새 사람한테 하라 하면 택도 없제. 요새는 모터를 놔서 하는 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다. 비 오고 이러면 뒤집어져서 사람 많이 죽었다. 저 밑에 까지 떠내려가고.

봉고차 타고 밀양도 가고 삼천포도 갔다. 내가 일을 참 잘해서, 그런 데 가면 낯선 곳에서 왔는데 일도 잘 한다고 억수 좋아하고 밥도 고기에 많이 차려줬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모심기를 보기는 봤는지 모르겠다마는 옛날엔 다 그래 살았다.





오토바이를 가져올 때는 못 느꼈는데,
할머니가 시장가면서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매 보는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게 우리한테는 그냥 오토바이지만 할머니한테는 할아버지인 거야.

그리움을 담은 할머니의 오토바이

성진제
1967년생
오토바이
1980년대

그리움을 담은 할머니의 오토바이

제 원래 고향은 경상남도 함양이에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농한기 때 아버지가 노가다 하러 창원에 왔다가 창원 공단이 생기고 하면서 도시에서 자식 교육을 시켜야 겠다, 해서 촌에서 나오게 됐죠. 나는 창원서 결혼을 하고 살다가 김해 외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았어요. 근데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너무 좁고, 나한텐 안 맞더라고요. 촌에 살던 정서가 있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나는 촌집을 구해서 노후 때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그때는 촌집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창원 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이 주택이 추천 매물로 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자나무도 앞에 있고 환경적으로 몇 년 후에는 괜찮겠다 싶어서. 2003년 3월 12일에 낙찰을 받고 들어왔죠.





여기 처음 왔을 땐 주변이 이렇게 안 예뻐했어요. 산책로도 없었고,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었고. 내가
여기 와서 재생한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 심심해서 집 주변도 꾸미고 했어. 대나무도 그렇
고, 저 나무도 사실 우리 아버님이 물려주신 씨앗이에요. 화분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모종 몇 포기
를 땅에 꽂으니까 한 10년 만에 번진 거예요. 느티나무도 10년 정도 됐고.

지금은 여기가 무계동으로 돼 있는데 옛날엔 삼문마을이랑 같은 마을이었어요. 80년대에 고속
도로가 나면서 쪼개졌는데, 이런 얘기는 내가 옆집 살던 할아버지랑 친해지면서 다 들은 거예요.
저기 삼문마을 다리 건너가면 정자나무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동네 어른들이랑 같이 여름을 보
냈어요. 3년을. 주위 할머니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내 나이가 어중간하다보니까 젊은 사
람이랑 못 어울리고, 정서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딱 맞는 거라. 촌 동네 이야기도 잘 통하
고. 저 오토바이는 삼문동 사는 할머니한테 얻은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같이 무
계장에 왔다 갔다 하던, 시장 다니던 그런 거였어요. 나는 손재주가 많아서 뭐를 잘 고쳐요. 할머
니들 혼자 살면 집이 많이 고장이 나는데 내가 가서 수도도 고쳐주고 그랬지. 이 할머니도 혼자 사
니까 마당이 지저분하더라고. 겨울철에 나무도 베야 되겠고 그래서 마당에 가서 이리저리 구경



을 하다가 저 오토바이를 발견했지요. 근데 이 오토바이가 작품 같이 오래 돼서 있는 거라. 창원 대림자동차에서 만든 건데 요즘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4, 5년 됐을 건데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거니까 못해도 15년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받았죠. 나중에 여기 센터 같은 게 생기면 꽃 바구니도 걸어서 이쁘게 해놓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 그리고 나도 몇 번 타고 다녔죠.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해가면서, 도색도 다시 하고

근데 오토바이를 가져올 때는 못 느꼈는데, 할머니가 시장가면서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매 보는 거야. 안 보는 척 하면서. 원래 우리 집 마당에 세워놔있거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게 우리한테는 그냥 오토바이지만 할머니한테는 할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느티나무 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던 걸 내가 이쁘게 해 놓을게요. 나중에 도시재생이 되면 내가 전시해 놓을게요.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온 기분이 들 겁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다 담긴 거일 테니까.





이 책은 100년 만에 작성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나면 1914년도에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여기가 장유면이 됐는데 조금 변하긴 했지만 옛 마을,
부락의 모든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왔어.

백 년 이상의 가치를 담은 장유면지

송봉업

1942년생

18대 장유면장

무계동

장유면지

2014년

백 년 이상의 가치를 담은 장유면지

나는 지금 여기 산지가, 내 나이가 칠십넷인데 내가 나기 전에 할아버지부터 살았으니까 한 200년 되나? 3대가 여기 산 거지. 내 같은 사람이 없어 여기에. 무계는 조선 말기부터 집중적으로 크기 시작했어. 1910년 전후로 해서 한일 합병될 쯤부터 중심이 됐지. 왜냐하면 1910~1913년 옛날 면사무소, 헌병부 재소, 우체국, 금융조합, 국민 학교 이런 게 설립된 게 지금 장유농협 본점 앞자리라고. 모든 행정과 금융의 중심이 여기였다는 거지. 그런 세월이 흘러가다가 1919년 4월 12일에 무계사거리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이 책은 100년 만에 작성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나면 1914년도에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여기가 장유면이 됐는데 조금 변하긴 했지만 옛 마을, 부락의 모든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왔어. 그때부터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에





면지가 만들어진 거지. 원래 제목도 '장유지'로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면지'라고 이름 지어졌어.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만들긴 했는데 혹시 다음에 면지를 또 만들어 된다면 틀린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은 후대들이 수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장유의 전체적인 지세를 일마삼룡(一馬三龍)이라고 불러. 김해의 최고 높은 산인 불모산의 정기를 받은 팔판산, 용두산, 반룡산, 용지봉이 일마삼룡인데 팔판산이 일마야. 팔판산은 지도상 화산이라고 돼있는데 풍수지리학 천마섬운형이라. 말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른다는 뜻이지. 삼룡은 용두산, 반룡산, 용지봉인데 용두산은 황룡도해형으로 용이 바다를 건너는 자세를 말하고 반룡산은 용이 더 멀리 뛰려고 뜨고있는 상태를 말하지. 용지봉은 용이 하늘을 날으는 모양새야. 이런 이야기는 면지에 잘 나와 있어. 장유에 세 개의 하천이 조만강으로 흐르는데 나는 이걸 장유는 하나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원래 3동을 분통할 때 각각 이름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내가 장유는 하나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 역사가 떨어지는 느낌이니깐 장유 1, 2, 3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무계에는 무계의 역사를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석묘야. 우리 어릴 때는 유적지인 줄도 모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놀이터로 사용했고 동네 어른들도 그 옆에 있던 수향버들나무를 휴



식처로 썼지. 그 앞에 부돌이 있는데 능동의 중봉사라는 절의 부돌이었을 거라 추정되고 있어. 그리고 하나가 용두산에 있는 토성이야. 조선 영조시대에 김여수라는 장군의 활터도 있고 한데, 내가 복원해야 된다고 주장해도 잘 안 되네.

이런 역사에 대해 관심은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애. 3대가 여기에 사니까 구전을 통해 들은 것도 많고 해서. 장유면지에 서술한 것도 있어. 나는 역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거든. 나도 하나의 역사고, 내 인생이 역사고 또 이 마을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활동을 잘 안 하지만 90년대에는 팔판문화연구회도 하면서 역사 연구도 하고 책도 내고 그랬어. 세월이 흐르니 이것도 하나의 역사가 된 거지.

장유가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지금 지역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났는데 발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용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싫어하지. 참여할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옛날 추억이나 역사를 살리기에는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을 해. 다만 역사의 이야기를 빚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본 뜻을 왜곡시키면 곤란해. 그런 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보봐, 개다리반상을 자세히 보면 좇농이 녹은 자국 그대로 남아있지.
개다리반상에는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던 외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지.
이 상을 볼 때마다 우악스럽던 외할머니가 자꾸 떠올라.

어른들의 손때 묻은 나비장과 개다리반상

양미화

1961년생

무계현협동조합이사장

무계동

나비장·개다리반상

1950년대·1900년대

어른들의 손때 묻은 나비장과 개다리반상

나비장, 1950년대

무계에 산지는 30년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때는 우리 아파트 빼고 전부 파란 들판이었어요. 실은 들판이 좋다고 들어왔었어. 내가 시골 출신이라. 고향이 충북 영동이거든.

나비장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거예요. 이거 가져올 때 우리 형님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딸을 안 주고 며느리인 나를 주대. 시어머니가 35년생인데 스무 살 나이로 시집을 때 혼수로 사오셨다 하더라고. 한 60년 전에 팔려고 하셨는데 20만원 달라고 했다. 그때 당시 20만원이면 큰돈이었는데 그거





보면 좋은 물건인 것 같아. 나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냥 옷 넣는 장롱으로 쓰고 있어. 처음에는 이불도 올려놓고 했는데 갈수록 신경이 쓰이더라고. 시어머니는 진짜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장남인데 내가 애를 10년 만에 낳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뭐라 하신 적이 없었어. 그냥 지켜봐 주시더라고. 아버님은 완전 경상도 스타일이었는데 나를 많이 아껴주셨어. 맨날 시골 땅 팔아서 머느리랑 같이 살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일찍 가버리셨어.

개다리반상, 1900년대

우리 외할머니한테 받은 물건도 있어. 개다리반상인데, 나비장보다 더 오래 됐어. 우리 외할머니가 참 재밌는 분이었어요. 이름이 한사담이라서 사담댁, 사담댁하고 불렀는데 욕 잘하고 노래 잘하고 완전 골목대장. 우리가 칠남매였는데 동네에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렸어. 그만큼 호랑이 할머니. 대신 우리한테도 욕을 잘했지. 무지막지한 욕들. 가시네들이~ 뭐 어찌고저찌고~. 나는 밥 먹다가도 외할머니 욕 들으면 밥숟갈 놓고 학교로 갔어. 우리 엄마가 도시락 들고 뒤따라 쫓아오고 아버지는 '나도 참는데' 카면서 뭐라 하셨지.



외할머니가 진짜 오래 사셨어요. 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호적상으로 이미 110살도 넘었네. 우리 할머니가 108세 되던 해에 면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가 날아왔어. 외할머니가 8세라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라는 거야. 출생연도도 안 보고 보냈나봐. 너무 웃겨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배를 잡았지.

이 반상은 외할머니가 공들일 때 사용하던 거였어요. 초파일, 보름, 칠석 이럴 때. 이것도 백년은 됐을 거야. 이 위에 정확수 뜨고, 쌀도 올리고 찻대에 초도 꽂아 올리고 그랬죠. 가끔 점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애. 손가락 세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반상 위에 보면 아직도 초 자국이 있어요. 외할머니가 공들인다 하면 우리가 수발을 들곤 했는데 마을 어른들이 쌀 가져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 자식들 건강하고 잘 되라고 했겠지. 옛날 가구들은 쇠못을 안 쓰고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맞췄는데 이게 낡긴 해도 아직 튼튼해.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집에 보관하고 있던 걸 발견해서 들고 왔어. 내가 이런 옛날 물건에 관심이 많거든. 여기 온지도 30년 넘었는데 지금도 이걸 보면 외할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





그래서 다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우 투 리브?
이걸 늘 생각해야 돼.

하우 투 리브(How to live), 삶을 담은 사진들

이철재
1958년생
41통 무계1구 통장
무계동 사진들
1970-80년대

하우 투 리브(How to live), 삶을 담은 사진들

군대 3년, 대학교 댕긴 거 빼고는 다 여기 살았지. 지금 사는 집으로 온 거는 80년대 쯤. 우리 집이 원래는 농협 바로 앞에 있었어. 잘 살았어. 아버지가 운수업을 했거든. 장유화물센터라고.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을 안 해 가지고 운수업으로는 장유 1호라. 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차를 많이 탔지. 아버지 트럭을 가지고 장유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 갈 때나 이럴 때 타고 다녔어. 어떤 사람은 진통이 와서 병원 가던 중에 우리 아버지 차에서 애를 낳았다 하더라고. 그만큼 우리 아버지 차를 안 탄 사람이 없다. 아버지가 성함이 이강만인데,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저 차는 강만이 차다, 강만이 차다, 이래 하거든. 내가 이 썬데 사람들이 내 성이 강 씨인 줄 알고 강 군, 강 군 그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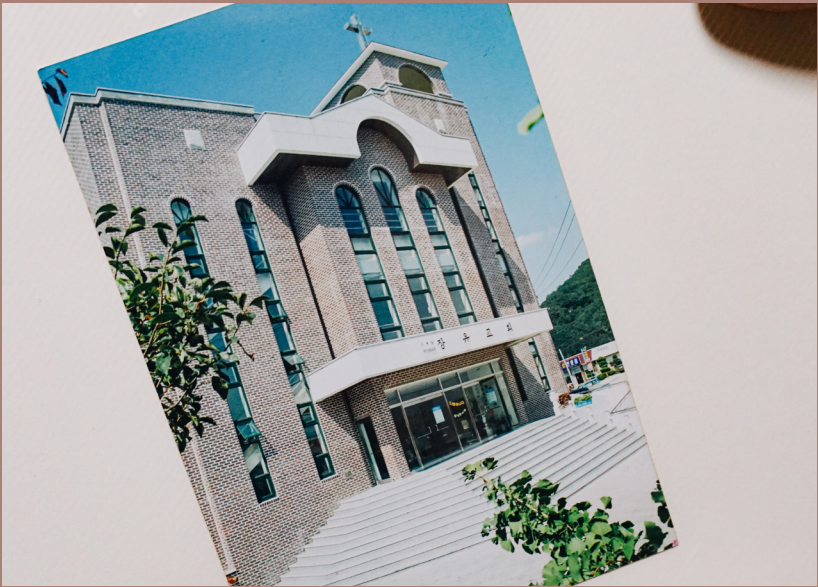
그때는 웬만하면 다 농사일을 해서 다른 집 친구들은 학교 마치면 소 풀





먹이러 가고 그래야 됐는데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잘 했어. 공부할 시간이 많았거든. 학교는 무역학과를 나와서 경영학 쪽으로 공부를 했지. 학교 다니면서는 교원 자격증을 땀어. 상고에 교생실습을 나가서 학생들한테 타이포라이트라고 타자기 가르치고 무역용어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왔지. 그러고는 회사 생활도 2년 정도 했는데 내랑 너무 안 맞았어. 노동자 문제도 많았고. 그때는 일요일까지 당연하게 일을 하러 가던 시절이잖아. 생각이 많아지는 기라. 하우 투 리브?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

87년 결혼 전까지는 김해에 축산업이 억수로 유행했어. 그래서 축산업을 해야 되겠다. 꿈을 안고 울하 쪽에 우리 자형 농장에서 일을 했지. 우리 아버지가 집에 빈둥빈둥 놀지 말고 가서 자형 도와서 돼지를 키워라 하면서 돼지를 사주셨어. 땅을 사주야 되는데 돼지새끼를 사주는 기라! 그때 울하 땅값이 평당 5천 원. 6천 원 할 때였는데 88올림픽이 발표되고 나서 땅값이 5, 6만원 하는 거야.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 집 400만호를 건설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해서 땅값이 30만원까지 올랐어. 그래하니까 우리 자형이 돼지 키우고 축산업 하는 것보다 이걸 팔아서 어디 투자를 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야 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야. 그때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어. 그래서 이제 돼지도 못하게 됐지.



대신 그때 집을 많이 지었어. 봄이 있으니까 건축업을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외삼촌 댁 밭에 창고랑 이런 거를 지어줬던 것을 시작으로 90년 돼서는 공부도 좀 하고 해서 건설회사에 소장으로 취직을 했어. 진영, 장유에 있는 나이트클럽, 볼링장 기타 등등 많이 지어봤지. 95년도까지 거기서 일하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겠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음해에 회사를 만들었지. 수주를 좀 했어. 대저토건 같은 큰 회사랑 일도 하고 IMF도 잘 견뎌서. 그때 꾀발 날렸지. 그러다가 2001년도 연말에 뇌졸중으로 자빠졌어. 2002년 월드컵 때 남들은 다 신나서 축구 볼 때 나는 우리 마누라 손잡고 운동하고 다녔지. 이야, 주변에서 오만소리 다 나오대. 그냥 위로해주는 것도 아픈데 돌아서서 이 청재 뭐라뭐라 뒷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건설업이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살아나기가 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우 투 리브? 이걸 늘 생각해야 돼. 요새는 농사 하면서 우리 동 이장으로 살고 있어. 사람들 화합도 시켜야 되고 주민들 요구 사항 있으면 취합해서 시청에 전달도 해야 되고. 3년찬데 할 일이 많아. 무계에서 재생사업 하면서 내가 무계헌 협동조합 감사를 또 맡았거든. 요새는 이렇게 또 바쁘게 지내고 있어.





얼마 전에 옛 정미소 자리 지나가던 길에,
복원한 건물도 보고 왔다. 그렇게라도 보니까 반갑대.
‘어마, 옛날 우리 집이네’ 싶더라.

힘들었지만 고마운 우리 옛날 집, 정미소

허문전&정홍길
1944년생&1940년생
무계동 · 옛정미소
1950년대

힘들었지만 고마운 우리 옛날 집, 정미소

할아버지¹⁾의 증조할아버지 때 진해 경화동에서 삼문리로 넘어왔다.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계속 무계에서 살았고, 나는 김해 어방동에서 태어나서 결혼하면서 무계동으로 왔지. 그때가 1969년 1월 10일이다. 나는 이런 날짜도 다 기억한다. 할아버지는 모르지.

정미소를 시작한 거는 내 듣기로는 해방되고 살 집을 지었으니깐, 1940년대인가 1950년대인가 그럴 거라. 할아버지가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정도였다더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 시작했던 것 같다.

나는 당시에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서 나중에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정미소 시작할 때만 해도 장유면에 전기도 없었다대. 무계 중심부에 전기가 조금 있었던

1) 허문전 씨가 정홍길 씨를 지칭하는 말. 여기서 나오는 할아버지는 정홍길 씨를 말한다.



사진제공 : 성진제씨



가. 그랬는데 그걸 삼문리 쪽으로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한 게, 우리 시아버지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또, 기억 나는 게 내 시집을 때쯤에 그때는 어방동에 전기는 다 들어오고 그랬어도,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 그랬는데 결혼하고 1970년쯤에 TV를 샀다. 왜 다리 달려 있고, 문 열어서 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윗동네, 아랫동네 통틀어도 우리 집에만 TV가 있어 가지고, 여름이었지 싶다, 여름이니까 그렇게 밖에 나와서 TV를 볼 수 있었겠지. 마당에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연속극 '여로'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나네.

할아버지랑 내가 정미소를 하기 시작한 것도 내 시집오고 나서다. 할아버지가 대학을 안 갈라게서, 우리 시아버지가 '나는 마 농사짓고 살아라' 해서 농사를 짓게 된 거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미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지. 정미소에 고정 일꾼 두 명 두고, 가을 되면 바빠서 달 일꾼 대가 지고 일을 할 정도였지. 정미소 할 때 생각하면, 마 역수로 힘들었다. 방앗간끼리 경쟁,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기라. 만일에 한 집에서 농사짓고 들에 타작해 놓았으면 그거 다 그 집까지 실어주야 되고 그랬다. 우리 집에 오가 보리랑 밀이랑 짚게 할라 하면, 그렇게 다 도와주고 해줘야 하는 기라. 손님들은 한동네에서 서로 다 아는 얼굴이고 그랬다. 지금도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그때 단



정미소에서 사용했던 사기 그릇.

끝이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지내지.

방앗간 그만둔 건 내가 50대 초반이다. 지금 내가 일흔일곱이니까 한 20년도 더 됐지. 30년 가까이 됐네. 체력적으로 힘도 달리고, 또, 일꾼 데리고 하려니까 인건비도 비쌌다. 그 당시에 공장이 주위에 들어오면서 집 지어가지고 세를 주면, 우리 사는 데는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지. 그래서 그 터에다가 집을 지어 가, 우리가 지 아홉 가구가 살았다. 방 두 칸씩 넣어가, 한 가족이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 옆에 2층 지어서 거기 가서 살았지. 그때 정미소 그만두고 새집 올릴 때 그릇이나 이런 건 싹 다 버렸다. 쓰던 것보다 새 물건이 좋다는 마음에 다 버리고 지금은 하나도 없지. 지금 와서야 그게 아쉽네.

2019년에 옛 건물 복원한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집으로 이사 왔다. 얼마 전에 옛 정미소 자리 지나가던 길에, 복원한 건물도 보고 왔다. 그렇게라도 보니까 반갑대. '어마, 옛날 우리 집이네' 싶더라. 거기서 우리 자식들 다 키워서 공부시키고 했으니까, 일은 힘들었지만 생각하면 고맙고 그렇지.



사진제공 : 성진제씨



재봉틀은 내 시집오기 전부터 있었지.
우리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기라.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백 살이 넘었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재봉틀

최곡자
1952년생
무계동
재봉틀
1920년대

시아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재봉틀

결혼은 스물세 살에 했지. 나는 고향이 의령, 시아버지 고향도 의령. 시아버지가 경찰했다. 경찰하는 바람에 여기저기 이사를 댕기다가 여기 자리를 잡은 거지. 온 김해 일대를 다 댕기다가 여서 퇴직을 한 거야. 내가 시집올 때는 시아버지가 퇴직했을 때고. 신랑은 시아버지랑 온 데 이사 댕겼겠지. 나기는 가락에서 났다 캬나 뭐라카드노.

맨 처음에 장유 오니 남편은 토마도 농사를 하더라. 요 바로 앞에서, 아래채 짓기 전에 거기 논이 세 마지기 있었거든. 3년 했대. 근데 시집오고 6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중풍이 들어가 23년 동안 똥오줌 받아냈다가. 나중에는 시아버지도 같이 중풍이 들었는데 시아버지는 한 8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큰 아들 낳고 연년생으로 딸 낳고 3년 있다가 또 딸 낳고 또 연년생으로 아들 낳고. 애가





넷인데 시어머니까지 해서 다섯아이가. 맨날 등에 아 업고 떨어진 적이 없었다. 내 오고 나서 15년을 더 토마토 농사 했으니 고생 억수로 했지. 우리 남편이 장남은 아이고 셋째데, 장남은 저기 서울에 살고 둘째 시숙어른은 양자로 갔어. 위에 동서가 애를 못 낳아서 아들을 준 거지. 요새는 그래 안 해도 옛날에는 당연히 모두 다 그래 많이 했다. 할 수 없어도 주고, 주기 싫어도 주고 주고 나서 애가 터져도 그런 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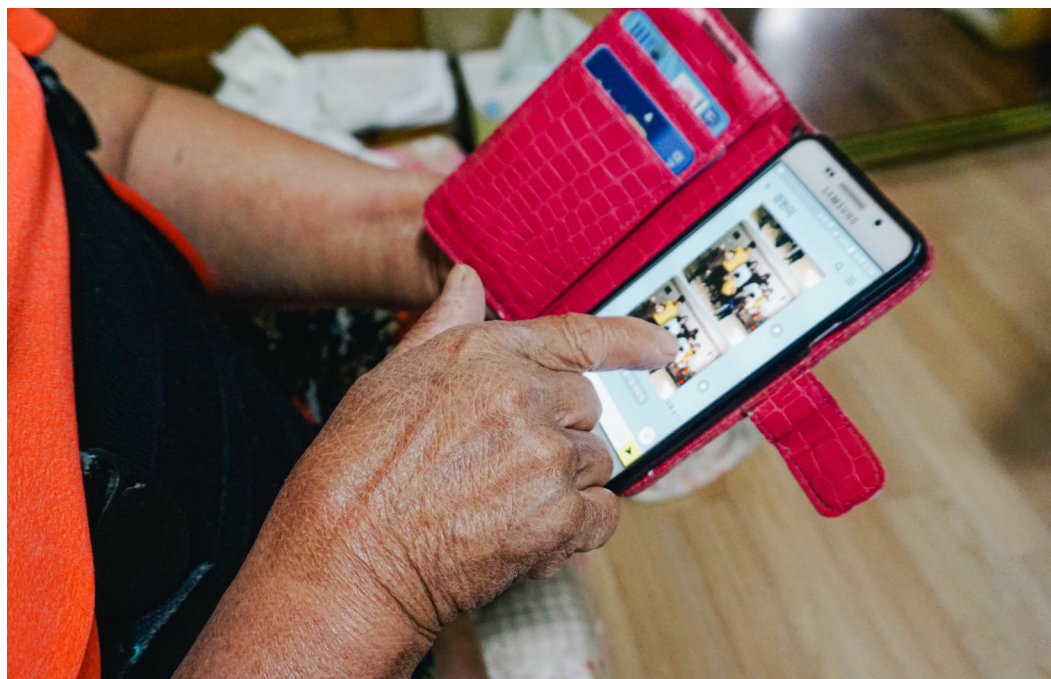
그러다가 남편이 농협에 들어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16년을 댕겼다. 일을 참 잘해갔고 근데 애들이 많으니까 내도 와이셔츠 회사에 한 3년 3개월 정도 일했다. 막내아들이 7살이고 작은 딸이 8살일 때는 공부할 때 쓰는 그 스탠드, 스탠드 만드는 공장, 거기 내가 6년 넘게 댕기고. 그러지 않으면 아들이 자꾸 병원에 댕기고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와이셔츠 댕기는 회사에는 의료보험이 됐거든. 그래서 3년 3개월 댕겼어. 스탠드 공장은 저기 다리 거리 옆에 있었고, 와이셔츠 공장은 저기 산 밑에, 지금 찜질방 옆에 있었다.

재봉틀은 내 시집오기 전부터 있었지. 우리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기라.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백 살이 넘었나.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자기도 이걸 종고로 샀는데 그때 이미 30년 뒀다 했으니까 지금 한 백 년 된 기라. 이게 일제라 그런가 지금도 참 잘 돌아가. 재봉틀은 우리 친정에도 있어서 처녀 때부터 다룰 줄 알았어. 근데 손틀은 아니고 발틀. 내가 애들 키울 때 지금 재봉틀에 발틀



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다. 발틀집도 사고 시장에 틀 만지는 사람이 온다. 팔기도 하고 오는 날은 오고 안 오는 날은 안 와도 오긴 온다, 한번씩 3, 4년 전에 오만 원 주고 재봉틀 한 번 고쳤어. 고칠 때만 해도 애들도 다 나가고 집안일도 있고 해서 사용 했는데 이제는 뭐 잘 안 하지. 옛날에는 또 시 어머니가 집에 있으니까 어찌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 허구한 날 베개 만들었다. 진시장 가서 천 떼와 갖고 베개 만들고... 가구 위에 장식하는 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 수도 났다. 틀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수가 되거든. 이번에 내가 집 정리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거 다 내빼릿는데 원래 화장대 위에도 있었고 문간에 신발장 위에도 있었어.

여 공장 생긴 데, 옛날에는 저기도 우리 논이었다. 지금 부산서 내려오는 고속도로, 거기도 원래 동네였지. 고속도로 길 뚫는다고 여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월산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도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또 밑에 범동포 있는 데 한 동네 꾸며서 갔다가. 삼문리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그래 이렇게 지낸 게 나이가 벌써 칠십이 돼버렸네.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나마 훈장 정도고,
기록물이 있었어도 세월이 흘러서 거의 다 훼손됐더라고.
그래도 계속 찾아보아야지.

부모님 시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옛 물건들

최종대

1954년생

장유무계도시재생주민협의회 역사분과위원장

무계동

토기와 맷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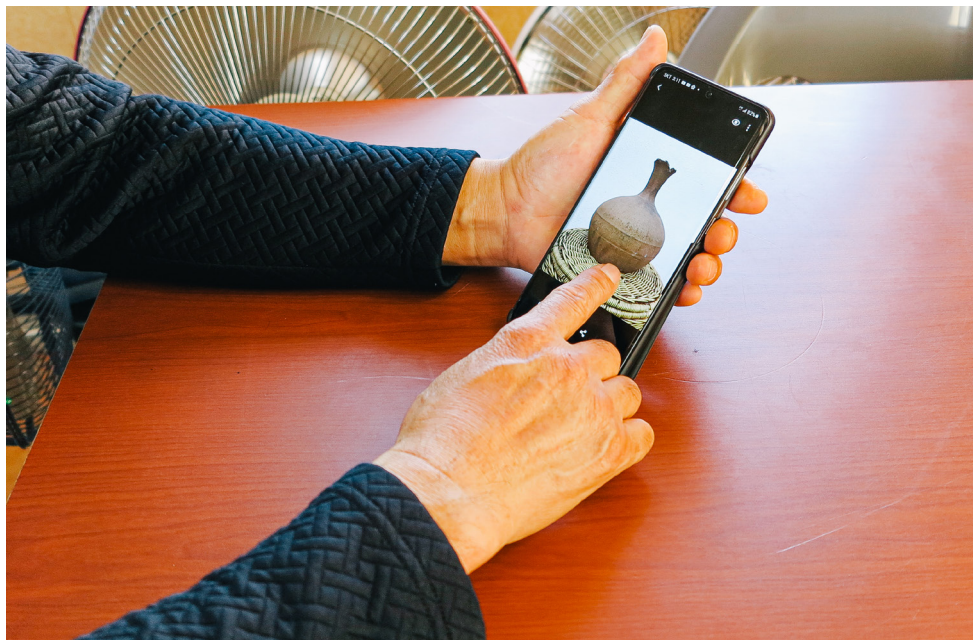
1900년대

부모님 시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옛 물건들

나는 여기 장유 삼문동에 능동부락이라고 있어, 능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능동이라고 불렀다. 거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외부로 나간 적 없이 여기서 지금까지 쪽 지냈지. 30년 전쯤인가, 마을이 도시화되고 삼진맨션 처음 지어지던 시기에 이 동네로 옮겨서 살고 있다.

마을에 살던 때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마을 밑으로 야산에 토기가 많이 묻혀 있다고 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도굴꾼들이 버글버글하게 왔어. 와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데도 막 파가지고 갔다. 우리야 어릴 때니까 보고만 있었지. 토기뿐만 아니라 철로 된 칼 같은 것도 나왔었다더라.





마을에 있는 옛날 사진이나 자료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 사진 보면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예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공동 우물 사진도 있고, 허허벌판이던 시절 사진도 있지. 이 사진들은 팔판문화연구회라고 팔판산 이름을 따서 만든 단체에서 모은 것도 있고, 장유면지에 실려가 있는 사진들도 있고 그렇지. 또, 내가 산에 가서 찍은 사진들도 있다. 이런 사진들 보고 있으면 옛날에 아버지랑 어머니들 시대에 어떻게 놀았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다.

우리 집에도 오래된 물건들이 좀 있다. 양산에서 유명한 토곡이라는 분이 만든 오래된 찻잔이 있지. 토곡이 도자기 만든 분의 호지, 호 일본에서 전시도 하고 유명했다더라. 찻잔 말고도 옛날 물항아리나 놋그릇 같은 것도 있다. 또, 오래된 게 우리 집에서 계속 내려오는 토기이지.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대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150년에서 200년은 안 되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이 토기는 부뚜막에 있었거든, 지금 말로 하면 싱크대인데, 큰 가마솥 걸어 두고 평평한 데다가 올려놔지. 집에서 막걸리로 식초를 발효했는데, 그 토기에다가 했지.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 졌다 보니까, 그릇 자체가 숨을 쉬잖아. 거기다가 발효한 자연 식초는 엄청 좋아. 음식 맛이 다르지. 요즘 화학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옛날 그 맛을 못 따라가지.

저기 시골집에는 맷돌이랑 절구통 같은 것도 남아 있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능동마을에서 정미소



를 했거든. 그때 남은 건데, 맷돌도 왜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맷돌은 선반이나 그런 데서 갈아서 밀
으로 똑똑 떨어지는데, 우리 거는 주둥이가 있어서 갈면 그 길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거였지. 아무래
도 오랜 세월 집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 보고 있으면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지. 찹쌀 찜
어서 떡 하는 모습, 콩 갈아서 두부 만드는 모습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는 이 마을 역사를 중에, 장유에서 진행했던 삼일만세운동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4월 12일에, 조금 늦었지만, 3천 명이 모여서 했는데, 면 소재지에서 그 인원이
면 거의 다 모인 것이거든.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 기록물이나 사진 자료
도 별로 안 남아 있고,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나마 훈장 정도고, 기록물이 있었어도 세월이 흘
러서 거의 다 훼손됐더라고. 그래도 계속 찾아봐야지.



편집자주

당신의 ‘오래된 미래’는 무엇인가요?

창고 한쪽, 책장 위 소복이 먼지가 쌓인 그곳에 지난 시간의 내가 있다.

손으로 툭툭 먼지를 털어내고 그 시절 나를 마주한다.

‘그땐 그랬지’. 추억의 상자 속에 폭 빠질 수 있는 그것.

현재의 내가 오래된 그것과 마주하는 순간도 새 과거가 된다.

‘오래된 미래’, 당신의 현재 역사를 담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일기장

별글 김예린 편집장



‘중효일기’, 초등학교 1학년 첫 학교생활에서 매일 아침 선생님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었다. 강제적으로 써야 하는 일기. 선생님께 확인 받아야 하는 일기. 그때는 일기가 숙제였다. 글 쓰는 방법도 모르는 여덟 살은 꾸역꾸역 일기를 써야 했다. 일기는 대부분 ‘~해서 즐거웠다. ~해서 신났다.’로 끝났다. 일기가 쓰기 싫었던 날에는 어디서 본 동시를 일기장 칸 가득 채워 넣었다. 여덟 살의 ‘꿈수’였다. 꿈수는 얼마 가지 못했다. 일기 대신 일주일에 두세 번 동시를 채워 넣자. 숙제 검사하던 선생님은 ‘예린이 요즘은 일기보다 동시가 더 자주 보이네. 너의 하루를 써주렴’이라고 일기장에 적어줬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여덟 살 예린이는 하루를 열심히 나열했다. 중효일기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6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다. 여덟 살부터 열세 살까지 나는 매년 ‘난 마음이 다 큰 어린이’라 착각했다. 마음이 다 큰 어린이의 착각은 일기장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감성적인 단어들로 꽉꽉 채워졌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발견하면 하루를 기록했다. 창고에 회색 먼지가 풀풀 날리는 박스 안에 고이 모셔진 나의 일기장들. 일기장을 펼치며 그 시절 예린이와 마주한다. 어른스러웠던 어린이, 격동의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된 지금의 예린이를 바라본다. 양팔로 어깨를 감싸며 ‘그래, 이 정도면 바르게 잘 컸다’며 나를 보듬어준다.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소니 워크맨’

별글 전은영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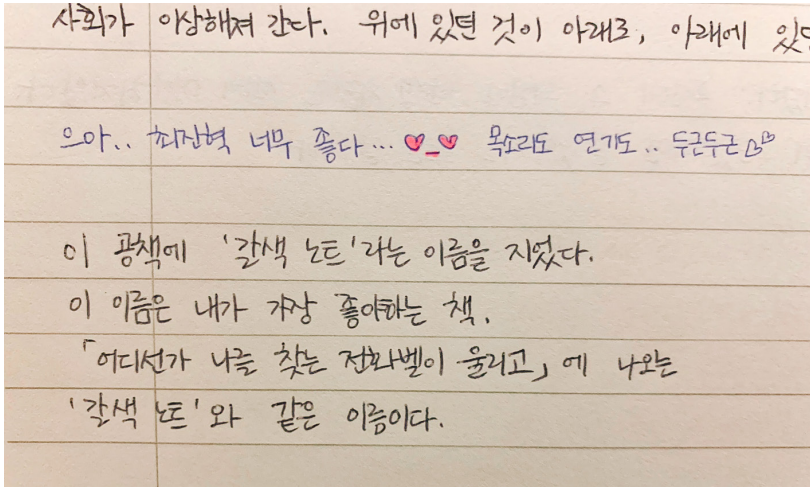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실제로 무엇이든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을 마련 없이 쓰레기통에 넣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오래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20년간 수십 번의 대청소 끝에 남은 한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소니 워크맨’이다.

어떻게 워크맨이 내 품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이제 가물가물해졌지만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과 함께한 시간은 아직도 기억난다. 은빛으로 반짝이던 기기에 흠집이라도 날까 봐 애지중지했던 기억.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틈만 나면 음악을 듣느라 금세 테이프가 늘어져 냉장고에 넣고 복구되길 기도하던 추억. 친구와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던 시간.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건다 보면 세상에 오롯이 혼자 남은 듯 느껴지던 해방감까지. 이제는 서랍 한 귀퉁이에 남아, 음악 대신 그 시절을 재생해주고 있다.

갈색 노트

별글 박신정 작가



이 일기장이 어디서 났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어디서 무료로 받은 싸구려 공책이었던 것 같다. 표지도 내지도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없지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록을 시작했던 공책이다. 그때 한창 빠져있던 소설가 신경숙의 소설 중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 나왔던 갈색 노트와 같은 이름을 지었다. 단순히 겉표지가 갈색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온 나날 중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면 고3 시절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 나는 그때 계속해서 일기를 썼다. 하루의 일과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감정이나 생각들, 친구들과의 관계, 내 미래...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가도 이 순간을 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별거 아닌 이야기도 많다. 이를테면 '새 지저귀는 소리가 예쁘다' 같은 말들부터 '수학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같은 시답잖은 푸념까지.

이 일기장에는 십 대의 마지막 한 해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나면 펼쳐보는데 고작 19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글들을 적었는지 신기할 때가 많다.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사나, 하는 반성도 들고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된다.

누구나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고 사는 것 같지만 더듬어보면 큰 덩어리들뿐일 때가 많다. 나를 바꾼 사소한 순간들이 기록된 어떤 것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특히 뭐든지 잘 까먹는 나에게 이런 기록이 굉장히 귀하다. 20대에도 이런 기록 하나를 남기고 싶다.

주최: 김해시 주관:  김해문화도시센터

진행: 벌글(김예린, 전은영, 박신정, 김예지) 발행인: 이영준(김해문화도시센터장)

기획: 손민지, 김희동, 김예린 협력: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일: 2020년 12월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로 324번길 45-18(무계동)

디자인·제작: 핸드디자인

2020 웰컴레지던시 커뮤니티 프로젝트
‘오래된 미래’